

# 딸에게 외치는 진솔한 백서

김숙현 작가의 연극 '얇은 사람 선 사람'



불자 극작가 김숙현 <사진>씨의 '얇은 사람 선 사람'이 3월 20-24일까지 알라 핵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한국 1세대 여성 극작가와 15세대 여성연출가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제 1회 여성극작가전'의 작품 중 하나로 무대에 오르는 이번 작품의 연출은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 관장) 씨가 맡았다.

엄마와 딸이 마주 앉은 풍경은 그림을 향한 그들의 작업스타일 만큼이나 단절되고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딸은 한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어머니를 무참하게 따돌린다. 대중 앞에서는 당당한 예술가였으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누에고치처럼 자기 속에 파묻혀 소통을 거부하는 딸 앞에서 정여사는 여지없이 실패한 어머니임을 드러내는데...

김 씨는 "이 작품은 모친으로부터 무조 씨가 맡았다.

## 현대인의 숨겨진 트라우마 형상화 3월 20일부터 알라핵 소극장서

건 받기만 했던 2세대 정여사가 3세대 딸에게 외발로 서서 외치는 진솔한 백서(白書)이자 혼신의 프로포즈라"고 전했다. (02)762-0810 정혜숙 기자



김숙현 작가의 연극 '얇은 사람 선 사람'

'얇은 사람 선 사람'에는 치열한 예술가적 근성으로 당대 최고의 화가로 성공한 어머니 정여사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육아보다는 자신의 일이 우선이었던 엄마의 그늘에서 폐쇄적으로 성장한 딸이 주인공이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여사와 딸의 성격형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지녔던 정여사의 모친까지, 모녀 3대로 이어지는 정한(情恨)과 소통을 향한 몸부림이 줄거리를 이룬다.

김 숙현 작가는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은 얼마만큼일까라는 의문에서 연극은 시작된다. 모녀관계는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제일 가깝고 끈끈하며 운명공동체적 유대감을 지닌다. 그 속에 드리워진 간극과 균열을 파헤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의식과 현대인의 내면 깊이 숨겨진 트라우마를 형상화했다"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한 평생을 자아실현에 몰두했던 정여사를 대신해 가사와 손녀양육을 도맡았던 친정어머니를 떠나보낸 정여사는 딸 희수가 살고 있는 뉴욕의 아파트를 방문한다. 모처럼 딸과의 정회도 풀고 예술동지로서의 유대감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 사진으로 그려낸 수목 산수화

박정훈 사진전 숲도갤러리서

"이번 작품은 수목산수화의 현대성 보다는 그것이 주는 의미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일상의 번잡함을 잠시 잊고 바라보는 별세계 말이다. 하지만 이 세계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먼 산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따름이다"



박정훈 작가의 '먼산'

사진가 박정훈 씨가 3월 31일까지 불교진흥원 숲도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연다. 사진으로 수목화를 그리고 싶었다는 작가는 우리 산수선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박 씨는 "산 정상에 올라가 맞은편 산을 담겨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산봉우리가 아래에 허공이 위로 드러나게 되죠. 여기에서 몽실 몽실한 우리 산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진 여백의 미가 나타

되죠"라고 자신의 작품을 설명한다.

서울 인근의 산에 올라 좌선도 하며 산을 그대로 느낀다는 박정훈 씨. 작가는 그의 작품이 사진이라고 해도 좋고 수목화라고 해도 좋다고 말한다. "묵의 느낌이 나도록 작업을 했으니 무엇이라 말해도 좋습니다. 그저 관람객들에게 자연이라는 하나의 장을 내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정혜숙 기자

# 흑으로 그려낸 붉은 파도의 '히말라야'

화가 이종송 'RED MOUNTAIN GREEN SEA'

"히말라야를 여행하면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위대한 자연에서 받은 감동과 교감을 오케스트라 같은 동적인 느낌으로 표현했죠. 히말라야는 인간의 힘으로 범접할 수 없는 진리의 땅이죠. 그래서 그 경이로움은 인간의 존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남자의 여행>으로 사찰 기행집을 낸 화가 이종송 씨(건국대 회화학과 교수)가 3월 19일까지 인사동 공아트스페이스서 광활한 히말라야를 담은 'RED MOUNTAIN GREEN SEA' 전을 연다. 5년 여 동안 수차례 히말라야를 탐기위해 여행을 떠났던 작가는 곳곳에서 느끼는 감동을 그대로 스케치해 사찰 흥취와 기법의 작품으로 펼쳐냈다. 히말라야와 고대 무역로 차마고도를 오가며 인공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과 나는 교감을 예술적 감수성으로 표현해낸 것이다.

"저는 앉아서 그리는 그림보다는 현장을 보고 그곳에서 느끼는 순간적 감정을 포착해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랑목사 탐립 등 산과 인간의 문화가 어우러진 히말라야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히말라야 역시 직접 여행을 해보고 여기서 받았던 감동을 제 방식대로 표현해냈죠"

이종송 작가 작품의 특징은 사찰벽화 기법이 응용됐다는 것이다. 작가는 그동안 '움직이는 산' 등의 연작을 통해 전통 흥취와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목을 받아왔다. 이는 무위사 등의 사찰 벽화 작업, 국립중앙박물관 실크로드 작품 재현 등 오랜 시간 불화 복원 작업을 해왔던 작가의 이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고구려벽화의 이미지 복원 연구'로 논문을 낼만큼 벽화복제미술 전문가이기도 한 그

는 직접 황토와 석회를 가공한 소석회로 질감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위에 천연 안료를 이용해 산의 풍경과 느낌을 담아내는 것이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인간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미비한 존재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점에서 흥취와 기법은 자연을 담아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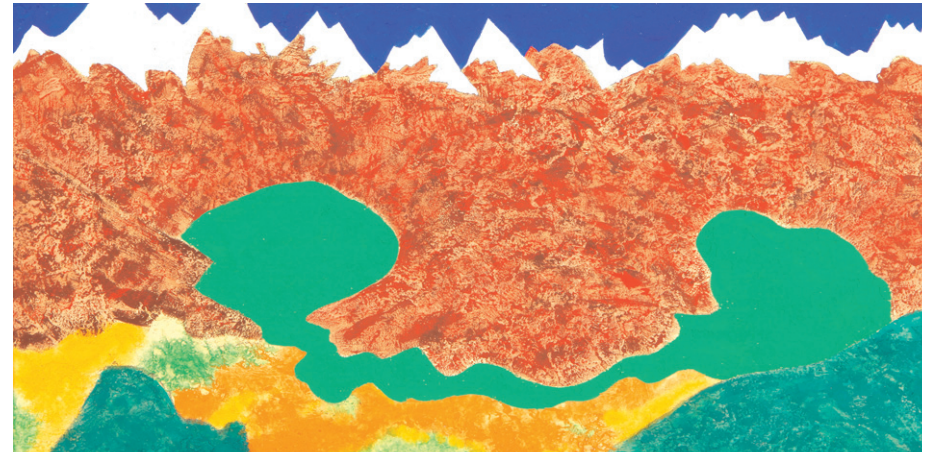
철저한 현장 사색으로 탄생한 그의 작품 속에는 히말라야와 차마고도의 식생이 고스란히 자리한다. 그리고 뜨고 지는 해를 따라 붉게 물드는 히말라야의 환혼한 산세

## 5년 동안 수차례 히말라야 여행 거대한 자연에서 받은 감동 사찰벽화 기법으로 표현해내

는 붉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산으로 표현된다. 또 굽이치듯 이어지는 절벽과 협곡 사이를 흐르는 옥빛의 물을 간직한 차마고도는 푸른 빛으로 넘실댄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그대로 자연을 노래하는 환혼의 서사가 되고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산문·그림·글이 접목된 사찰 기행 여행집 <남자의 여행>을 내기도 했던 그는 절집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도 히말라야의 광활한 산에 구태 화엄사의 매화를 살포시 얹어 놓은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화엄사 매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죠. 한철에 3~4번은 구례로 내려가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관찰해요. 산 아래 있는



이종송 작가는 3월 19일까지 공아트스페이스에서 'RED MOUNTAIN GREEN SEA' 전을 연다. 이 씨는 이번 전시에서 사찰벽화 기법으로 히말라야를 담아냈다.



나 위에 있느냐에 따라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니 그 미묘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기 위해 봄만 되면 화엄사를 오가곤 하죠" 봄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3월의 봄날, 작가는 또 매화를 보기 위해 화엄사로 발길을 돌릴지 모른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의 찰나를 스케치해 또 다른 자연의 세

계를 화폭에 담아낼 것이다. 이종송 화가는 서울대 미술대학 동양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했다. 제 1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제 1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건국대 회화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02)737-5527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빛으로 피어난 깨달음의 세계

부산시민회관서 3월 17일까지 동휘스님, '해피만다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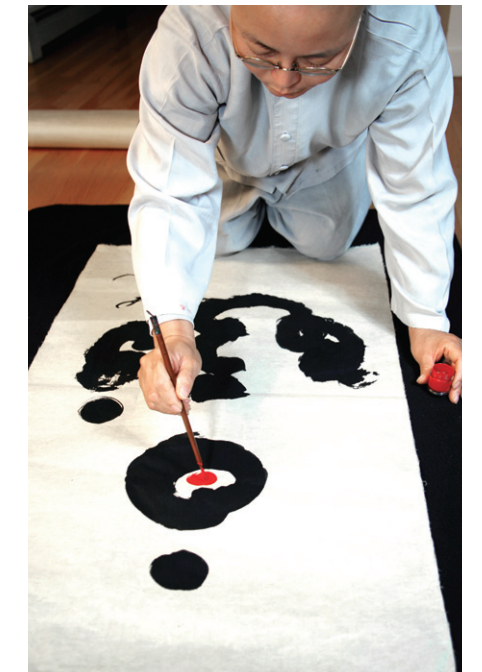
만다라 수행에 앞장서 온 동휘 스님의 '빛나는 부산, 해피만다라' 전시회가 부산 시민회관 한솔갤러리에서 개최된다. 3월 17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깨달음의 빛이 탄생하는 곳,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한국불교의 메카, 불교 도시 부산에서 개최된다. 여기서는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를 빛으로 피어난 만다라와 동휘 스님의 옴 불꽃 200여 점의 선보인다. 해피만다라문화원 원장 동휘 스님은 "깨

달음의 세계를 빛으로 피어난 것이 만다라다. '옴' 자는 그 빛의 씨앗이다. 그리고 태극은 음과 양이 만나 생명을 생성하는 빛의 공장과도 같다. 이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의 빛인 '옴'과 태극 도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세계를 밝히는 빛의 중심임을 알리고자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만다라를 통한 수행과 문화포교에 매진해 온 동휘 스님은 "만다라는 눈으로 보는 깨달음의 세계다. 만다라를 그리거나 명상 체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 바로 빛나는 수행, 해피만다라 수행법이다. 이번 부산 전시회에

인연 있는 부산불자들이 만다라를 통해 마음의 눈이 뜨고 부산불교가 세계속의 빛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학에서 서양미술을 전공한 동휘 스님은 수석사 건성암 정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티베트에서 추상 립포체를 만나 만다라를 처음 접했다. 이후 20여년 동안 세계 각국의 만다라를 수집, 소장하거나 직접 조성했다. 현재, 강원도 홍천 여래사에서 만다라 수행과 문화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기간 중 동휘스님의 옴자 퍼포먼스, 모래만다라 시연, 그리고 매일 오후 2시 범문도 진행된다. (033)434-7332 박경수 부산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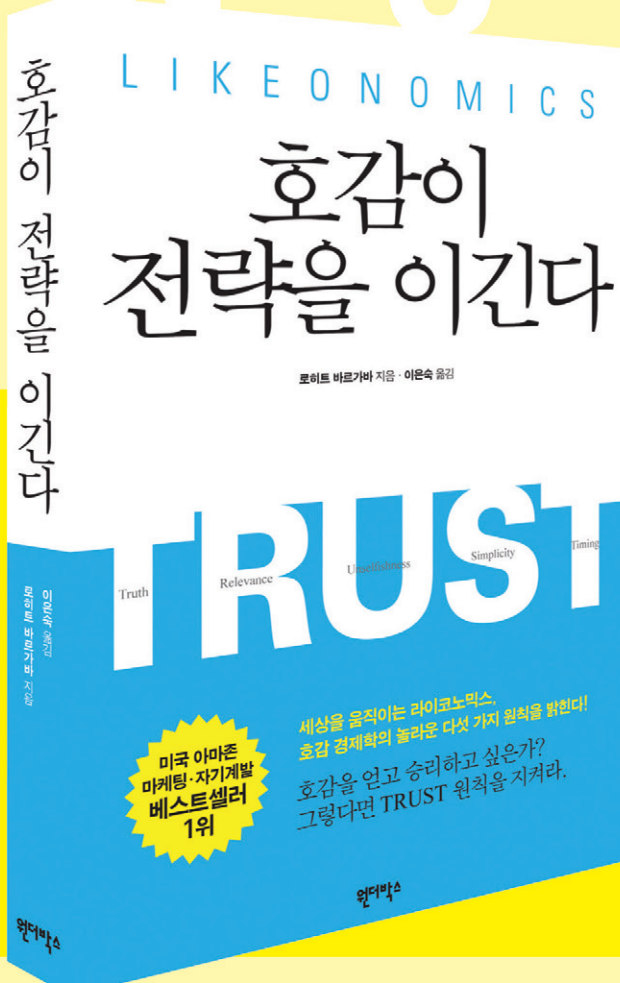


만다라 작업중인 동휘 스님.

"호감 경제학(likeonomics)은 2012년에 회의실을 뒤흔든 가장 주요한 네 가지 마케팅 용어 중 하나이다." - <마케팅 위크>

# LIKEONOMICS

호감을 얻고 승리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TRUST 원칙을 지켜라!



미국 아마존 마케팅·자기계발 베스트셀러 1위

세상을 움직이는 라이코노믹스, 호감 경제학의 놀라운 다섯 가지 원칙을 밝힌다!

더 이상 기업과 마케팅, 광고를 믿지 않은 신뢰성 위기의 시대에 호감을 얻는 자만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탁월한 마케팅 전문가 로히트 바르가바의 이 책은 호감을 얻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요 원칙을 통해 비즈니스에서 남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로히트 바르가바 지음 | 이은숙 옮김 | 328면 | 값 15,000원

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한 이 책을 통해 시장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다가가기 쉬우며,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공을 찾아가길 바란다. - 다니엘 핑크('드라이브', '새로운 미래가 온다'의 저자) 일에서는 인생에서는 성공에 이르는 길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성공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야! - 디베 초프라('성공을 부르는 인공 지능 혁명의 저자) 거칠고 지배적인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다. 호감 경제학의 시대에서는 인간 관계가 최고다. - 조너선 베리(GAP 최고 마케팅 책임자) 신뢰와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호감도의 영향력과 이 책을 뒷받침하는 개념이 정말 마음에 든다! - 오리 브래프먼('스웨이', '몰락'의 저자)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운에 맡기지 말고 이 책과 저자의 온라인 워크북을 곁에 두어라. - 델린 리('오픈 리더십', '그라운드스텐'의 저자, 알티미터 그룹 설립자)